

지방 대학생의 일의 의미,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홍인* (대구대)

■ 요약 ■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의 의미, 학습민첩성, 진로준비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대구·경북권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분석에 130부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SPSS 26.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의 의미를 부여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나타나며, 학습민첩성이 발현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지방대, 일의 의미, 진로준비행동, 학습민첩성

* 본고는 IHRD 총서 51 전환의 시대의 일과 삶 그리고 학습 “지방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학습”을 수정·보완하였음. 또한, 이 연구는 202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조교수, hihrd@daegu.ac.kr

I. 서론

청년실업, 취업난, 취포세대가 등장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이 되었으나, 1997년 IMF가 터진 이후 그야말로 취업대란이 시작되었다. OECD(2020)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으로 청년층을 지목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이 경제위기시 신규 고용을 중단함으로써, 청년층은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함선유 외, 2021). 2021년 10월,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하여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구직을 단념한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이렇게 대졸자의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경력 축적 지연과 전 생애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성 감소, 실업률 가중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증대 등의 부정적 결과로 귀결되므로, 대학졸업생의 취업난은 청년 개인만의 손실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손해인 것이다(강주연 외, 2015).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이 겪는 불안과 위기에 있어 지방대학생은 지방대학이라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방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상록, 2007). 대학시기는 입직 전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생은 지방대 출신이라는 노동시장의 차별 관행 등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수도권은 68.7%이나, 비수도권은 66.0%로 수도권과는 여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20). 그 밖의 연구(예를 들어, 김민순, 정영애, 2012; 장용희 외, 2016)를 통해서도 지방대학생은 수도권 졸업자에 비해 취업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대학생의 진로문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정지애, 이제경(2018)은 지방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는 지방대학생의 진로준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출발하였다.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행이라는 진로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예림과 정혜원(2020)은 대학생의 진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지난 20년 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꾸준히 연구된 변인임을 밝혀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 적성, 가치관 등의 조건을 고려하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장용희 외, 2016).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은 성공적인 취업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소병한 외, 2017), 이 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응 측면에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Roenkae & Pulkkinen, 1995). 그러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송영선, 송현정,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 관련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시절의 진로준비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찰을 수반하며(이효선, 2019), 직업에 의해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Savickas, 1997). 또한, 인간은 자신의 진로관련 행동과 직업관련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구축해나간다(Savickas, 2005). 탁진국 외(2015) 역시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일을 의미화하는 것은 경력목표, 동기, 경력태도 등 직업 및 진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신에게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일의 의미를 형성해 가며 결국 그것을 현명한 진로선택으로 이어가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과업이다(황매향 외, 2013). 그런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이현서, 심희경, 2016).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정지애와 이계경(2018)은 지방대학생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재학생과 취업생 및 미취업생이 지각하는 진로문제와 어려움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대상별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인간은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습을 통해 성장할 것이며(성은모, 진성희, 2019), 미래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학습민첩성이 핵심인재 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임창현 외, 2017). 학습민첩성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학습민첩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우성미, 정홍인, 2022). 하지만 기업 조직구성원들의 학습민첩성 향상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에 취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대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을 사전에 향상시켜 준비된 인재들로 기업에 진

출시될 필요성에 대하여 대학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성은모, 진성희, 2019). 이효선(2019) 역시 학습민첩성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대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의 하나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만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학습민첩성, 일의 의미 간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수의 역할,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진로 설계시 기초자료로 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일의 의미

일(work)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행위의 수단으로(김수진, 2014), 사람은 누구나 일의 여러 가지 역할 중 하나 또는 여러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며 직업 활동에 종사한다(이종은, 장재운, 2009).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역할과 목적이 뚜렷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일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며(Wrzeniewski et al., 2003),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Harpaz & Fu, 2002). 즉, 일의 의미(meaning of work)란 자신의 일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인식하는 마음가짐이며(양지혜 외, 2015),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일을 바라보고만 들어가는 방식을 안내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다시 말해, 일의 의미는 개인의 삶에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Rosso et al., 2010).

이러한 맥락에서 Steger 등(2012)은 개인이 일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일에서의 긍정적 의미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둘째, 일을 통해 만드는 의미로서 일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셋째, 공공의 선으로서의 동기차원으

로, 일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일에 대해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은 채로 부모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거나, 남들이 하는 진로경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생이 되지마자 스펙 쌓기, 공무원 시험 등 전형적인 취업경로를 쫓아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황대향 외, 2013). 따라서 대학생들은 경력개발에 핵심적인 이 시기에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고, 결국 일의 목적과 의미를 자신의 진로목표와 연결시켜야 한다(이지연, 2006).

한편, 우성미와 정홍인(2022)은 국내에서 발간된 일의 의미를 메타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Steger 등(2012)의 정의와 측정도구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정의를 기반으로 개인이 일에 대하여 갖는 신념, 가치 등의 마음가짐으로 정의하였다.

2. 학습민첩성

노동시장 입직을 앞둔 대학생은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성은모(2017, 2018) 역시 대학생은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 민첩하게 학습역량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학업에 참여하고 능동적인 진로 준비를 위해서는 학습민첩성이 더욱 요구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학습민첩성이란 새롭고 낯선 환경에 직면했을 때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을 적용하고 결과를 창출하는 의지 및 능력(Lombardo & Eichinger, 2000)으로 처음 경험하는 낯선 환경에도 빠르게 배우고 생각과 행동을 유연하게 하는 역량을 말한다(DeRue et al., 2012). Larkin(2015)은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특정기술, 경험, 일반적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민첩성이라고 하였다.

학습민첩성은 주로 기업맥락에서 핵심인재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 관련 연구(박현정, 2022; 성은모, 이성혜, 2020; 정홍인, 우성미, 2021)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이 기업에 취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인재들을 감안할 때 이들의 학습민첩성을 사전에 향상시켜 준비된 인재들로 기업에 진출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대학원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성은모, 진성희,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의 개념을 Lombardo와 Eichinger(2000)가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처음 직면하는 상

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고 그것을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진로준비행동

2022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022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3%는 취업준비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며, 29.6%는 대졸 신규채용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청년 취업시장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학생활보다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학점수를 획득하는 활동,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나 자료들을 갖추는 활동,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동 등이 진로준비 및 실천행위이며 이러한 진로행동적인 측면을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한다(김봉환, 1997).

진로는 대학생들의 미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것(유희영, 오윤정, 20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혜선, 김봉환, 2013; 송현심, 홍혜영, 2010).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필요요건을 갖추고,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취업 전략을 세우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써(이예진, 이기학, 2010),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차원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즉, 진로준비행동은 심리나 인지적 측면보다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행동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문승태, 박미하, 2013)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턴 등의 활동을 통한 직업경험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모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차원으로 접근한 김봉환(1997)의 정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4. 변인 간의 관계

McCaulley(2001)는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문제나 기회를 만났을 때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며, 자기성찰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구, 경북권 내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한 정홍인, 우성미(2022)는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충북 소재 4년제 대학의 항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이효선(2020)은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가 선택한 진로가 확실할수록,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년제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위영은 외(2021) 역시 학습민첩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과 주도적 진로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수연과 이희수(2020)는 학습민첩성을 통해 주도적 진로행동이 발현되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DeRue et al.(2012)는 학습민첩성과 긍정적인 수행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같은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 및 매개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일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진로발달의 전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진로관련 과업들에 대해서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신윤정, 2013), 일에서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려는 열망은 진로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Lips-Wiersma, 2002; Young & Valach, 2004).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소명(Calling)을 바라보는 관점(박주현, 유성경, 2012)에 따르면, 소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추구하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Weiss et al., 2004). 또한, 황매향 외(2013) 역시 자신에게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일의 의미를 형성해 가며 결국 그것을 현명한 진로선택으로 이어가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과업임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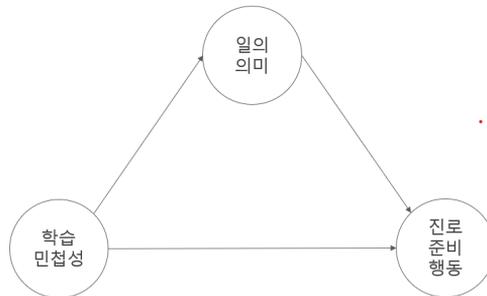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습민첩성과 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학습민첩성 관련 주요 단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장성진과 김정진(2021)은 학습민첩성과 연계한 주제로 대상, 주제, 철학 등 연구 주제의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민첩성 개념이 일 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학습 상황을 전제로 할 때(McCall, 1994), 일 경험을 지속해 나가면서 각각의 경험에서 원리를 수립하고 그것이 결국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Vicki(2014) 역시 학습민첩성이 현재까

지 보지 못했던 문제나 기회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민첩성이 뛰어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한다는(장성진, 김정진, 2021) 측면에서 살펴보면, 결국 일 경험을 통한 학습에 의해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학습민첩성, 종속변수는 진로준비행동, 매개변수로 일의 의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그림 1] 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대구, 경북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지방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송영선과 송현정(2015)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연구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현재 대학생의 과반수 이상을 육성하고 있는 지방대학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와 인근 주변 대학의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을 배포하였다. 1차 조사(2021.10.14.~10.20.) 때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총 167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일의 의미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로 수집하기 위하여 2차 조사(2021.12.09.~12.12.)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시 설문응답에 따른 기념품 제공을 위하여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였으며, 2차 조사를 위하여 동일 학생들에게 설문을 요청하였고 총 132부가 수거되었다. 1차, 2차 모두 설문 응답 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연구목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설문 작성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1차에 부여된 ID 중 2차에 응답한 ID를 일치시켰으며, 수거된 132부의 설문 중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 스크리닝을 하였다. 설문 문항을 ‘5’ 또는 ‘3’등 설문문항과 관계없이 하나의 숫자로 체크하여 표준편차가 0으로 나온 논문 2편을 제외 후 총 13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75명(57.7%), 남학생은 55명(42.3%)이었으며, 1학년 27명(20.8%), 2학년 30명(23.1%), 3학년 34명(26.2%), 4학년 39명(30.0%)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먼저, 일의 의미는 Steger 등(2012)이 개발한 WAMI(Working as Meaning Inventory)를 김수진(2014)이 타당화한 한국판 일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직 학생이란 점을 고려하여 미래지향형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일에서의 긍정적 의미(Positive Meaning),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Meaning Making Through Work),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Greater Good Motivation)로 구성되어 있다. 일을 하는 일에서의 긍정적 의미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는 자신의 일이 타인 및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더 큰 뜻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뜻한다.

다음으로, 학습 민첩성은 임창현 외(2017)이 국내 조직 내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대학생 대상으로 재타당화한 조현정 외(202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자기인식, 성장지향, 성찰추구, 행동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임은미, 이명숙(2003)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으로 구성되었다.

IV. 결과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의 주요변인인 학습민첩성, 일의 의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각 변인별 평균값은 3.05~3.91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성을 나타내는 기준인 왜도 값은 -.41~.14를 첨도 값은 -.56~.42로 나타나 West, Fich, & Curran(95)가 제시한 왜도는 2 이상, 첨도 7 이상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의 의미	일에서의 긍정적 의미	3.76	0.67	-0.03	-0.17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	3.83	0.69	-0.26	-0.02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	3.75	0.71	-0.28	0.42
학습 민첩성	자기인식	3.91	0.57	-0.41	0.37
	성장지향	3.97	0.60	-0.65	0.39
	성찰추구	3.41	0.79	-0.14	-0.56
	행동변화	3.05	0.76	0.14	0.13
진로 준비 행동	정보수집	3.18	0.70	0.07	-0.04
	도구구비	3.14	0.77	-0.02	-0.22
	목표달성	3.11	0.83	-0.04	-0.39

다음으로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의 관련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2 ~ .4이면 낮은 상관관계, .4 ~ .6이면 상관이 있으며, .6 ~ .8이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성태제, 시기자, 2014). 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계수의 분포는 .342 ~ .542로 나타났다.

<표 2> 변인 간의 상관분석

변인	일의 의미	학습민첩성	진로준비행동
일의 의미	1		
학습민첩성	.445**	1	
진로준비행동	.542**	.342**	1

*** $p < .001$, ** $p < .0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는 먼저 일의 의미와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1.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chi^2=37.269(df=32, p=.007)$, TLI=.985, CFI=.990, RMSEA=.036(신뢰구간 .000 ~ .077)으로 적합도 지수의 기본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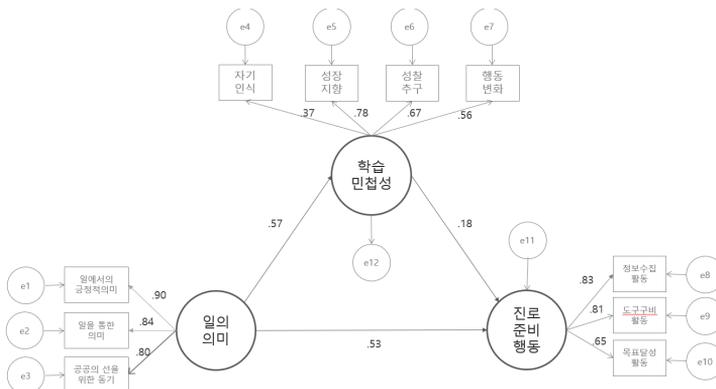
<표 3>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기준값	-	-	-	> .90	> .90	< .08
연구모형	37.269	32	.007	.985	.990	.036

*** $p < .001$, ** $p < .01$

3. 연구모형 분석

다음으로 가설적 구조모형에서 검증한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토대로 변인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첫째, 대학생에게 일의 의미는 진로준비행동($\gamma = .528, t = 4.02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의 의미는 학습민첩성(γ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569, $t=3.225^{***}$)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민첩성은 진로준비행동($\gamma=.184$, $t=1.399^*$)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인 간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였다. 학습민첩성이 매개변인으로서 기능하려면 독립변인인 일의 의미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하여야 하며, 독립변인인 일의 의미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게 감소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변인인 학습민첩성은 일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 측정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은 신뢰구간이 .038~.244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 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모형의 직접 및 간접 효과분석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일의 의미 → 학습민첩성	.57***		.57***
학습민첩성 → 진로준비행동	.18**		.18**
일의 의미 → 진로준비행동	.53**	.11**	.64**

V. 결론

2020년 1월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으며 노동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의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며, 지방대학생은 그마저도 갈 곳을 잃게 된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학교와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의 출발점에서 본 고를 기고하게 되었다.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일의 의미와 학습민첩성을 선정하였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수록 대학생은 일하기 위한 준비를 실천하게 될 수 있다. 일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는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Low et al., 2001), 진로목표를 분명하게 해준다(이지연, 2006). 일의 의미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개인의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지방대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성찰하면서 일의 가치와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동체적 삶과 연결하는 등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질 높은 교과목 운영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설계하여 스스로 일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전공과목에서 제공되는 지식적인 측면의 제공만으로는 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경 능력중심의 사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교과목에 NCS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과목과 NCS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관련 취업만을 장려하기보다는 창직, 창업 등이 다양한 취업경로를 제시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진로 안에서도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 교과목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COVID-19 등,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학습에 민첩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우성미, 정홍인, 2022). 이는, 학습민첩성은 학습자의 수행을 촉진하며(DeRue et al., 2012), 학습민첩성 향상 교육을 통해 취업준비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Roach, 2015)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우성미와 정홍인(2022)의 연구에서도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이효선(2020) 역시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다. 이에, 학습민첩성은 경험과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역량으로 변화가 가능하므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습민첩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을 높임으로써 성공적으로 학업성취를 이루고 진로를 결정하여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지방대학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 신입생 충원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주연, 오유, 김기승 (2015). 대졸자 특성과 취업 소요 기간. *산업관계연구논문지*, 25(2), 31-49.
- 교육부 (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김민순, 정영애 (2012). 지방대 학생의 취업장벽인식수준 및 관련변인분석: C 대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63-182.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RISS.
- 김수연, 이희수 (2020). 호텔 구성원의 무형식학습이 주도적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과 경력적응성의 매개효과. *관광경영연구*, 97, 481-508.
- 김수진 (2014). *한국판 일의 의미 척도 (Working As Meaning Inventory; WAMI)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RISS.
- 김예림, 정혜원 (2020). 대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823-845.
- 문승태, 박미하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85-204.
- 박주현,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 박현정 (2022).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및 셀프리더십이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1), 377-388.
- 박혜선, 김봉환 (2013). 여대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1), 343-357.
- 성은모 (2017).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활용 유형분류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유용성, 학습민첩성, 학업성취도의 차이 분석: 잠재계층분석(Laten Class Analysis)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3), 631-655.
- 성은모 (2018).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활용 능력과 학습민첩성이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4), 709-732.
- 성은모, 이성혜 (2020).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 그리고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1(4), 167-189.
- 성은모, 진성희 (2019).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수준에 따른 행동특성 분석. *교육공학연구*, 35(4), 1005-1033.

- 소병한, 전이제, 권준용, 송지훈 (2017). 신입사원의 진로준비행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의 매개효과와 기업교육훈련의 조절효과 검증. *기업교육연구*, 19(4), 155-185.
- 송영선, 송현정 (2015). 지방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3), 21-42.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양지혜, 김종인, 어재영 (2015). 개인과 조직의 가치 정렬이 역할 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의 의미를 매개효과로. *대한경영학회지*, 28(2), 715-734.
- 우성미, 정홍인 (2021). 일의 의미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융합연구*, 5(6), 89-101.
- 위영은, 우혜정, 김우철 (2021). 2년제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학습몰입과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빈도의 조절된 조절효과.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3(2), 405-419
- 유희영, 오윤정 (2019).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교육 관련국내 연구 동향 네트워크 분석. *학습자중심교육연구*, 19(17), 1023-1045.
- 이상록 (2007).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실태와 영향-지방대학생의 대학생활 태도 및 진로준비 행동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7(1), 253-270.
- 이예진, 이기학 (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29(2), 267-287.
- 이종은, 장재운 (2009).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근로 동기에 따른 유형 분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4), 487-514.
- 이지연 (2006). 청소년이 인식하는 일 가치의 변화. *직업교육연구*, 25(3), 163-181.
- 이현서, 심희경 (2016). 청년층 이직과정에 나타난 일 경험과 일의 의미: '가족중심 개인화'전략으로써의 이직. *문화와 사회*, 22, 283-348.
- 이효선 (2019).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학업도전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 197-204.
- 이효선 (2020).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을 매개로 다양성수용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4), 195-201.
- 임은미,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 임창현, 위영은, 이효선 (2017). 학습민첩성 (Learning Agility) 측정도구 개발 연구. *HRD 연구*, 19(2), 81-108.

- 장성진, 김정진 (2021).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민첩성에 대한 연구. *산업융합연구*, 19(2), 39-48.
- 장용희, 이재신, 신의수 (2016). 지방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융합연구*, 14(3), 163-184.
- 정지애, 이재경 (2018). 지방대학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취업진로연구*, 8(2), 47-74.
- 정홍인, 우성미 (2021). 교수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 대구·경북권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9(1), 481-507.
- 정홍인, 우성미 (2022). 교수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9(1), 481-507.
- 조현정, 위영은, 김우철 (2021). 성인용 학습민첩성 측정도구의 국내 타당화 연구. *HRD 연구*, 23(3), 99-125.
- 탁진국, 서형준, 김혜선, 남동엽, 정희정, 권누리, 김소영, 정일진 (2015). 일의 의미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3), 437-456.
- 한국경제연구원 (2021).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한국경제연구원.
-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코로나 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75-699.
- DeRue, D. S., Ashford, S. J., & Myers, C. G. (2012). Learning agility: In search of conceptual clarity and theoretical grounding.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5(3), 258-279.
- Harpaz, I., & Fu, X. (2002). The structure of the meaning of work: A relative stability amidst change. *Human relations*, 55(6), 639-667.
- Larkin, H. (2015). The New Health Care In a rapidly changing field, effective leaders require 'learning ag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s much or more than traditional skills. *Hospitals & Health Networks*, 89(6), 22-27.
- Lips-Wiersma, M. (2002). The influence of spiritual "meaning-making" on career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1(7), 497-520.
- Lombardo, M. M., & Eichinger, R. W. (2000). High potential as high lead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39(4), 321-329.
- Low, G. S., Cravens, D. W., Grant, K., & Moncrief, W. C. (2001).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lesperson burnout.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5(5/6), 587-611.

- McCall, M. (1994). Identifying leadership potential in future international executives: Developing a concept.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46(1), 49-63.
- McCaulley, C. (2001). *Leader training and development*, In S. Zacuaro & R. Klimoski(Eds.), *The nature of organizational leadership: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imperatives confronting today's leaders* (pp. 347-383), San Fransisco, CA: Jossey-Bassey.
-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COVID-19: From a health to a jobs crisis. <https://www.oecd-ilibrary.org/sites/1686c758-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1686c758-en> 2021.11.01. 발췌
- Roach, D. A. (2015). *The importance of improving learning agility for a growing population of graduate students: Helping universities meet 21st century workforce demands*. Robert Morris University.
- Roenkae, A & Pulkkinen, L. (1995). Accumual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381-391.
- Rosso, B. D., Dekas, K. H., & Wrzesniewski, A. (2010). On the meaning of work: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review.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0, 91-127.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 Steger, M. F., Dik, B. J., & Duffy, R. D. (2012). Measuring meaningful work: The work and meaning inventory (WAMI).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322-337.
- Vicki, S. (2014). Learning Agility: It's a trait of true leaders. *Leadership Excellence*, 31(2), 10-11.
- Weiss, J. W., Skelley, M. F., Haughey, J. C., & Hall, D. T. (2004). Calling, new careers and spirituality. A reflective perspective for organizational leaders and professionals. *Research in Ethical Issues in Organizations*, 5, 175-201.
- Wrzesniewski, A., Dutton, J. E., & Debebe, G. (2003). Interpersonal sensemaking and the meaning of work.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5, 93-135.

- Wrzesniewski, A., & Dutton, J. E. (2001). Crafting a job: Revisioning employees as active crafters of their 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179-201.
- Young, R. A., & Valach, L. (2004). The construction of career through goal-directed 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3), 499-514.

정홍인(단독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에서 성인계속교육학으로 박사 학위 취득 후 현재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평생교육정책, 대학생, 중장년, 고용가능성, 성공적노화 등임.

논문접수일 : 2023년 03월 08일

논문심사일 : 2023년 03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4월 18일

ABSTRACT

The Meaning of Work for Local University Students and the Impact of Learning Agil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eong Hongin (Daegu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ploring the factors that can enh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the meaning of work, learning ag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region, and a total of 130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SPSS 26.0 and AMOS 21.0 programs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meaning of work is perceiv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re more likely to occur, and learning agility was found to have an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learning agility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work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ways to enh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it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Local university, Meaning of work,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arning agility